

지역 매 아리

정읍시농업기술센터

돌발해충 성충기 적기 방제 당부

정읍시농업기술센터가 농림지에서 동시에 발생하는 돌발해충의 확산 방지를 위한 예찰과 방제 지도에 나섰다.

기술센터에 따르면 대표적인 돌발해충인 갈색날개매미충과 미국산너벌레, 꽃매미충은 현재 유충과 성충이 혼재되는 시기다.

성충은 기주 식물에 붙어 흡즙하거나 배설물로 그을음병을 일으켜 과실의 상품성을 크게 떨어뜨린다. 8~9월 산란기를 앞두고 있어 내년도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지금이 포살과 방제 적기다.

특히 뽕나무나 가로수 등에서 흰불나방 2회기 유충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발견 즉시 방제가 필요하다.

기술센터는 앞서 전년도 발생 지역인 칠보면과 산내면, 산외면 지역을 중심으로 마을별 신고를 접수해 배부해 친환경 방제와 밀도경감 기술을 보급하는 등 방제에 주력하고 있다.

더불어 호남고속도로 정읍휴게소 인근에 발생한 미국산너벌레의 확산 방지를 위해 주기적인 예찰과 합업 방제를 추진하고 있다. 기술센터 관계자는 "돌발해충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농가가 동시에 성충 적용약제를 이용해 방제해야 한다"며 "농경지뿐만 아니라 주변 가로수나 산림에도 약제를 살포해야 방제 효과가 크다"고 강조했다.

또 "방제 시에는 PLS(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를 준수해줄 것"을 당부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박준승 기념관 건립 총력

유진섭 정읍시장 "항일독립운동, 정읍의 역사적 가치를 새롭게 평가받는데 기여"

정읍시가 1919년 천도교 대표 15인과 함께 기미독립선언서에 서명한 애국지사 박준승 기념관 건립에 막바지 총력을 다하고 있다.

기념관은 민족대표 33인 중 한 분인 박준승 선생의 업적을 기리고, 선열들의 숭고한 애국애족 정신을 후손들에게 계승하기 위한 산교육 장소로 활용하기 위해 건립됐다.

시는 산외면 평사리 일대(6,045㎡)에 총 2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2018년 6월 착공, 현재 기념관과 내부 전시시설을 완공했다.

전통 한옥 형태의 기념관은 애국지사 박준승 선생의 업을 본받아 산외면 먹방산 자락에 기운차게 뻗어 있다.

기념관 앞 광장에는 4M(기단1.8M, 동상2.2M) 높이의 박준승 선생의 동상도 설치했다.

내부 전시시설은 선생의 애국 애족의 발자취를 따라 총 5개의 구역(환영의 존, 발견의 존, 만남의 존, 감동의 존, 체현의 존)으로 나누어 구성했다.

각 구역마다 박준승 선생의 일대기와 민족운동 등 애국 활동을 시대별·테마별로 전시한다.

1910년 초까지 전국에서 일어난 독립운동에 관련된 내용과 지역에서 활동했던 독립운동가 소개, 박준승 선생의 활동 사항이 담겨있는 영상자료와 관련 기록물이 전시될 예정이다.



유진섭 정읍시장은 올해 11월 중 개관 예정인 애국지사 박준승 기념관 건립공사 현장을 방문했다.

또 OX 퀴즈 등 다양한 볼거리와 정보를 제공하고 방문객과 학생들에게 애국정신 계승을 위한 산교육 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내용을 알차게 구성할 계획이다.

유진섭 시장은 "한일관계가 악화되고 있는 요즘 애국지사 박준승 기념관 건립은 항일독립운동의 역사를 한번에 알아볼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정읍의 역사적 가치를 새롭게 평가받는데 크게 기여 할 것이다"

한편, 애국지사 박준승 기념관은 11월 중 개관식을 가질 예정이며, 현재 부화장실 증축공사와 기념관 주변 담장 설치, 조경공사(무궁화동산, 한반도 조경, 데크계단 등) 등 막바지 공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지역 내 한부모 가족 대상

'자녀와 함께하는 하계 야유회' 실시

정읍시는 지난 3일 지역 내 한 부모 가족 27명을 대상으로 항공우주 산업도시 사천으로 떠나는 '자녀와 함께하는 하계 야유회'를 실시했다.

이번 캠프는 가족여행의 기회가 적은 한부모 가정을 대상으로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해 가족 간 정서적 친밀감을 키우고 화합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번 행사에서 가족들은 항공우주박물관을 찾아 문화해설사로부터 우리나라 최초의 비행기부터 일본에 원자폭탄을 투하한 비행기까지 다양한 비행기의 역사를 설명 들었다.

또 과학관을 견학해 아이들의 꿈과 상상을 키우고 산과 바다와 섬을 잇는 국내 최장구간 케이블카 탑승으로 뛰어난 한려해상을 한눈에 조망하는 특별한 체험을 경험했다.

평소 자녀와 문화탐방의 기회를 갖기 힘들었던 한 부모 가정 가족들이 다양하고 알찬 체험을 통해 소중하고 특별한 시간을 보냈다. /정읍=김대환 기자

농업용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건립

정읍시농기센터, 고품질 친환경농산물 생산 · 농가경영비 절감

10억원 투입, 12월 완공 예정... 연 200여 톤 유용미생물 공급

정읍시농업기술센터가 고품질 친환경농산물 생산과 농가경영비 절감을 위해 농업용 유용미생물 배양센터를 건립한다.

미생물제제를 공급하는 배양센터는 총 1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5일 착공을 시작으로 오는 12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배양센터는 제2청사 내에 399㎡의 규모로 지어지며 배양실과 실험실을 비롯해 사무실과 부대시설 등을 갖춘다.

특히 미생물 배양시스템과 실험기 자체 등이 설치돼 고초균과 광합성 균 등 4종을 생산·공급하게 된다.

센터는 2020년 시험기동을 거쳐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가면 연간 약 200여 톤의 유용미생물을 생산해 농가에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정읍=김대환 기자

농업용 미생물은 작물의 생육 증진과 면역증강, 병해충방제, 토양개량 등을 위해 사용되는 유익한 미생물이다.

토양 유기질을 분해해 지역을 높이고 생물의 생장 촉진과 품질 향상에 큰 도움이 된다.

종자 침지와 토양관주, 엽면살포 등의 방법을 통해 다양한 작물에 전 재배 기간에 걸쳐 이용될 수 있다.

기술센터 관계자는 "농업용 유용미생물이 본격 공급되기 전 농가를 대상으로 미생물의 효과와 활용방법을 교육하고 지속적으로 현장에 적용해 나가겠다"며 "고품질 농산물의 생산 뿐만 아니라 농약과 화학비료의 사용량을 크게 줄일 수 있어 농가 소득향상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 3단계 공공근로사업 본격 시행

고창군이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계를 돕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마련한 '2019년도 3단계 공공근로 사업'이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고 5일 밝혔다.

오는 10월말까지 3개월간 진행되는 고창군 공공근로사업은 행정자료 전산화, 민원사무보조, 환경정화사업 등 총 34개 사업에 68명의 군민이 참여한다. 군은 7월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5% 미만, 재산이 2억원 이하 군민을 대상으로 공공형 일자리 신청자를 모집했다. 소득과 재산, 부양가족수, 장애인 여부 등을 고려해 총점수가 높은 순으로 근로자를 선발했다.

근무시간 및 임금은 65세 미만은 주 30시간(주당 25만500원), 65세 이상은 주 15시간(12만5250원) 근무로 시급 8350원씩 지급하며, 근무일에 한해 교통·간식비(5000원)를 지급한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의회, 지방자치연구회 현장학습 펼쳐

정읍시의회 의원 7명(조상중, 고경운, 황혜숙, 정상삼, 기시재, 김중희, 이남희)으로 구성된 지방자치연구회에서는 지난 7월 31일~8월 2일(3일간) 정책의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세계문화유산도시 공주와 경기도 산천체육시설 및 도심공원 등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백제 역사유적지구의 문화유산을 찾아 현장학습과 연구활동을 통해 백제문화의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또한 시민의 삶의 질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선진 체육시설 및 도심 속 힐링공간을 돌아보고 우리시와 접목할 수 있는 정책개발의 시간을 가졌다.

특히, 동탄의 여울공원 및 작가공원은 체육과 문화가 공존하는 선진체육시설의 우수사례로 우리시에도 생활체육의 활성화 및 도심 속 힐링공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시민이 체감하는 건강한 도시를 조성할 수 있는 다양한 시책 도입을 검토하는 계기가 되었다. /정읍=김대환 기자



조상중 지방자치연구회장은 "세계문화유산 백제역사유적지구인 공주시의 공산성과 송산리 고분군을 둘러보고 지난 7월6일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정읍의 무성서원이 앞으로 격에 맞는 관리 및 활용방안과 관광객 유치 등 향후 나아갈 방향을 스케치 해보는 의미있는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의원연구단체는 간담회, 주민설문, 현장활동 등을 통해 시정에 접목이 가능한 연구결과를 위해 꾸준하고 활발한 연구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Advertisement for Gangsanmulmul Mulberry Wine. It features several bottles of wine, gift sets, and a cartoon bear mascot. Text includes 'Mulberry Wine You can now enjoy the wild ginseng that you dreamed of!', '청와대에서 즐기는 만찬주!', and '부안강산뽕주와 함께 오디주의 맛을 느껴보세요.' Various gift set options are listed with prices and quantities.